

# 재미한인수의사회 초청연수 보고서

**황 예 지**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  
awhang1225@gmail.com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준비해왔던 재미 건국대학교 수의사 동문회 주최의 미국 연수 프로그램에 합격해 한달간 Southern California에서의 소동물 병원 견학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재미 건국대학교 수의사 동문회에서는 미국에서의 소동물 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1년에 한명씩 본과 3학년 학생을 여름방학동안 초청하여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에서의 수의사로서의 삶을 옆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달간의 미국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고문을 통하여 많은 분들과 뜻깊었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달 동안의 캘리포니아 생활을 할 꿈에 부풀어 트렁크에 스크럽과 간단한 여름옷 몇가지만 챙겨서 캘리포니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에는 최낙봉 선배님께서 마중 나와 주셨는데,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자 말자 길을 따라 주욱 펼쳐져 있는 캘리포니아 특유의 Palm tree들과 청명한 하늘을 보며 '우와 정말 캘리포니아에 왔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낙봉 선배님과 점심을 먹으며 캘리포니아 수의사로서의 삶에 대해, 그리고 CPE와 PAVE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Animal Medical Center에 내리면서 본격적인 연수 스케줄이 시작되었습니다.

## 오현 선배님과

### Animal Medical Center at Valencia

Valencia에 위치한 오현선배님의 Animal medical Center에 들어서는 순간, 병원 데스크 앞의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과 leash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질서정연하게 앉아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보호자들의 모습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동물병원들은 보통 리셉션이 있는 곳에 각종 사료, 간식, 애견 용품과 옷들을 정렬해놓고 팔고 있어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현 선배님의 병원뿐만 아니라 이후 내원했던 다른 선배님들의 병원에서도 받은 첫 느낌은 정돈된 느낌과 깔끔함이었습니다.

오현 선배님께서 병원에 내원한 동물의 history와 Physical exam 결과 등을 주고 계게 항상 '왜 이런 것 같냐, 네가 수의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진단을 내리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며 active learning process를 유도하셔서 공부를 하며 많은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직 진단을 하는 과정을 아직 배우지 않아서 제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할까봐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수의사가 된 느낌이 들던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돌아온 후야야 내과에서 환축에 대한 History taking, Physical Exam, 그리고 Neurologic Exam을 하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이런 지식을 미리 습득하고 갔었다면 선배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조금 더 체계화된 답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심장초음파를 받기 위해 내원했던 개가 있었는데, 전문의인 Dr. King께서 자신의 장비와 어시스턴트를 데리고 내원하여 상세하게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general practitioner로 일하면서 얼마든지 각 분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진단을 구체화 시키고 상세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 시스템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날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은 개는 Canine HCM으로 최종진단명이 내려졌었는데, 전문의이신 Dr. King께서는 개에서는 보통 Dilated Cardiomegaly가 호발하기 때문에 HCM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드물다고 하셨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런 진단을 내리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침에 갑자기 Seizure로 급박하게 내원한 Eden이라는 개도 있었는데, x-ray나 신경검사상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2차적으로 MRI를 찍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동물병원 실습을 하면서 수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고 다음 treatment plan을 세울 때 비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치료를 거부하는 과정을 종종 보았는데, 미국에 와

서 본 보호자의 대부분은 수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treatment plan에 대한 compliance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MRI를 찍은 Eden은 최종진단이 meningioma로 내려져 steroid와 anticonvulsant를 처방 받았다고 합니다. 여름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내과 과목을 배우면서 Seizure가 있는 동물이 내원했을 때 Phenobarbital을 일차 처방약으로 처방하고 같이 steroid(prednisone)를 처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배웠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Animal Medical Center에서의 Eden이 생각나고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윤기종 선배님과**

**Crescenta Valley Animal Hospital at La Crescenta**

보통의 동물병원들이 mall안에 있는데 비해 La Crescenta에 위치한 윤기종 선배님의 병원은 독립된 건물로 치료실까지 따뜻한 햇살이 드는 전체적으로 포근한 느낌을 주는 병원이었습니다. 진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선배님께서 수의학 관련 잡지를 찾아보고 책을 보시며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시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수의학 서적을 여러 권 추천해 주시면서 각 진료가 끝난 뒤에 케이스에 대한 설명과 SOAP작성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Crescenta Valley Animal Hospital에 있는동안 한국 신문들과의 인터뷰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미 건국대 수의사회의 주최로 수의사라는 직업을 좀 더 잘 알리고 수의과대학 진학과 향후의 진로에 대해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의 한인 신문들과 인터뷰를 하고 세미나에서 수의과 대학 진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수의사라고 하면 소동물 임상 수의사를 으레 생각하지만 사실

수의사의 진로는 소동물 임상 수의사 외에도 과학자, 연구원, 대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진로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수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혜옥 선배님 덕에 머물며 LA에서의 삶을 체험하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정혜옥 선배님 덕에 머무르는 동안은 병원 진료를 보는 것 외에 캘리포니아에서의 삶을 체험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루 시간을 내어 LACMA를 방문하였는데, 하루종일 둘러보아도 다 못 볼만큼의 넓은 규모의 박물관에 고대, 근현대, 현대를 아우르는 유명 작가의 미술품들을 모두 총망라 해 놓은 것을 보고 넋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서수경 선배님과 휴일을 이용해 Santa Monica beach와 Getty Villa를 방문할 기회도 있었는데, 다양한 문화생활에서부터 원하면 언제든지 넓은 바다까지 볼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서의 삶이 새삼 정말 좋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남궁효선 선배님과**

**Banfield Animal Hospital at LA**

미국에 온 김에 1차 동물 병원 외에도 미국에만 존재하는 거대 동물병원 체인에서의 연수 경험도 앞으로의 진로 설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특별히 배려해서 신경 써주신 정혜옥 선배님과 흔쾌히 응해주신 남궁효선 선배님 덕분에 Banfield hospital에서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 체인 병원중의 하나인 Banfield Animal Hospital은 Pet Smart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Preventive medicine을 다루고 있기 Physical Exam과 Vaccination, fecal exam, deworming, Spay/Neuter등을 포함하는 wellness plan을 보호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병원이라 두명의 수의사와 여러명의 테크니션들이 매일매일을 상당히 바쁘게 보내는 병원이었는 데, 자칫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유머감을 잃지 않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보호자를 대하고 세심하게 진료 하시는 남궁효선 선배님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동물 용품 체인인 Pet Smart는 각종 동물에 관련된 식품, 용품을 없는 종류가 거의 없을 정도로 팔고 있는데, 그 크기가 거의 소형 쇼핑몰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동물 용품이나 사료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1층에는 grooming과 dog training class, 2층에는 adoption center까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한번 방문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 갈 수 있어 상당히 간편할 것 같았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최소한의 사료만을 팔고, 일반 사료나 용품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넓은 선택폭을 가지고 쇼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미국의 시스템이 수의사들을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외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dog adoption을 시행하고 있어 입양을 기다리는 많은 동물들이 좋은 주인을 찾아 새 보금자리로 가는데, 이러한 입양 시스템을 활발히 하여 버림받거나 안락사를 당하는 동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July 23rd -July 27th 2014 김현일 선배님과 TLC Animal Hospital at Chino Hills**

말 농장으로 유명한 도시인 Chino Hills는 LA도심과는 한 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옥창민 선배님께

서 라이드를 해주셔서 Chino Hills 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옥창민 선배님께서 1월부터 clinical year를 시작하시므로 가장 최근의 PAVE 준비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계신데,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하라고 하시며 후배의 기운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말로 유명한 도시답게 Chino Hills에 들어서자 말자 눈에 띄는 점은 도로 외측으로 말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TLC animal clinic에는 원장님이신 김현일 선배님과 박근형 선배님께서 진료를 보고 계셨습니다. 병원 근무 내내 밀러드는 appointment와 환측들에 정신이 없을만도 했지만, 뛰어난 실력의 수의사 선생님들과 그에 맞게 잘 보조해주는 테크니션들의 손발이 척척 맞아 바쁜 와중에도 병원 진료들이 질서정연하게 시간에 딱딱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배님을 따라 진료실에 들어가면 진료에 앞서 선배님께서 보호자에게 '이 학생은 수의과 대학교 학생이고 지금 externship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진료에 들어가 시는데,

어느 날 하루 김현일 선배님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보호자께서 제게 "이렇게 실력 있으신 최고의 수의사의 진료



를 observation할 수 있는 기회를 얻다니 넌 정말 행운이구나”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 전구에 불이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진료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수의사의 롤 모델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TLC Animal Clinic의 테크니션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여 상당히 숙련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Tammy는 김현일 선배님께서 병원을 개원하실 당시부터 10년간 같이 일해왔다고 하는데, 수의사 선생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병원에서의 생활에 정말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현일 선배님께서 테크니션들을 단지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가족처럼 아껴주시는 모습을 보고 진료 실력과 인품을 두루두루 겸비하신 수의사 선생님이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 김지철 선배님과 Inland Central Animal Hospital at San

Bernadino 연수의 마지막 주는 김지철 선배님과 함께 Inland Central Animal Hospital에서 있었습니다. 김지철 선배님의 병원이 위치한 San Bernadino는 히스패닉들이 주로 손님으로 많이 내원하는 편인데, 선배님께서도 지역마다 사람들의 인구 분포도가 다르고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환축의 breed와 내원하는 원인이 되는 질병도 많이 다르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특히 미국과 같이 큰 나라에서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자주 접하고 더 공부해야 되는 질환과 증상들이 있으니 항상 배움의 자세를 놓지 말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엔 백시안 사람들을 거의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내원하는 손님들과 리셉셔니스트들과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순박하고 친근한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이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 한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불테리어나 핏볼등의 큰 종류의 견종이 많이 내원하여 진료하시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김지철 선배님께서 앞으로 미국에 와서 수의사의 삶을 꿈꾸고 있다면, 일적인 면 외에 미국 사회에 와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이며 어떤 면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국 생활이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은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생각으로 미국에 왔다가는 처음에 고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단히 준비하고 미래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an Bernadino에서의 연수를 끝으로 김향미 선배님께서 저를 LA downtown으로 데려다 주시면서 저의 연수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시간 동안 미국에서 정착하여 산다는 것과 미국에서 수의사로서의 삶의 생생하게 바로 옆에서 체험해 보고 제 미래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던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후학양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주시고 많이 배려해주신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